

# 美國의 新經濟와 勞動市場

田炳裕·金美蘭\*

▷ 주요 목차 ◁

- I. 머리말
- II. 新經濟와 일자리 創出
- III. 低失業率과 低인플레이率
- IV. 生産性 패러독스의 解消
- V. 所得分配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는 영화 제목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최근 동향을 묘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말일 것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실업률이 4.0%까지 떨어졌다. 또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물가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계속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980~90년대에 걸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관련 투자가 급증했는데도 생산성이 정체하는 생산성 패러독스(productivity)가 해소되어 1995년 이후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미국 신경제의 그늘이라고 할 소득분배 악화문제도 지표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거시경제적 현상들이 과연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에 기인하는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신경제하의 거시경제의 최

\* 田炳裕=韓國勞動研究院 研究委員, 金美蘭=韓國勞動研究院 研究員

근 동향과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신경제란 혁명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보경제, 네트워크경제, 디지털경제, 지식경제 위험사회 등을 모두 신경제(New Economy)라는 개념에 포괄할 수 있다. 신경제란 일자리 창출과 높은 생활수준이 제조 및 서비스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의존하는 지식 및 아이디어에 기초한 경제이다. 신경제에서는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가 '예외'가 아닌 '규칙'인 경제이다(Atkinson and Court, 3~8)

신경제하에서는 매년 5만개의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1970년대에는 수천개에 불과하였다. 현재 IT(Information Technology)부문은 미국 GDP의 4.1%를 차지하여 여타 OECD국가의 2.5%를 능가하고 있고, 1992년 이래 전체 경제성장의 약 1/4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경제는 최근 인터넷의 확산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거시경제지표의 호전이 인터넷의 도입·확산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Barua(1999)는 미국의 인터넷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1997년에 301.4억달러(GDP의 1%), 관련 일자리는 120.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상반기에 160만명, 1999년 상반기에 230만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제 옹호론자들은 미국 경제의 최근의 좋은 성과가 이러한 변화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을 이끌었던 것은 공급부문에서의 개혁과 구조조정, 사유화, 탈규제 등이었다면, 1990년대 후반은 기술혁신이 인플레이션을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기술,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주식시장이 어우러져 대내적으로는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성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신경제, 특히 인터넷경제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최근의 좋은 거시경제적 성과는 다양한 공급 측면의 효과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일자리 창출, 물가-고용관계,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보기로 하자.

## II. 新經濟와 일자리 創出

미국은 1991년 불황에서 빠져나오면서 약 2,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취업자 증가)를 창출하였다. 비농부문 취업자가 1991년 1억 876만명에서 1999년 1억 2,73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민간 취업증가율은 경기저점인 1991년에 -1.1%를 기록한 이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2%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표 1 참조).

〈표 1〉 미국의 노동력 상황

(단위: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p
경제활동참가율	66.2	66.5	66.5	66.2	66.4	66.3	66.6	66.6	66.8	67.1	67.1	67.1
민간취업증가율	3.3	2.8	0.8	-1.1	0.3	1.9	3.1	2.7	2.1	2.6	2.6	2.2
제조업	2.0	1.1	-2.7	-3.5	-1.6	-0.2	1.4	1.1	-0.2	1.0	0.5	-1.8
서비스업	5.6	5.0	3.9	1.4	2.5	3.9	4.6	4.9	4.0	4.6	4.1	3.9
실업률	5.5	5.3	5.6	6.8	7.5	6.9	6.1	5.6	5.4	4.9	4.5	4.2

자료 : U.S. Dept. of Labor, *Monthly Labor Review*, 1990. 5, 1999. 11.  
 \_\_\_\_\_, *News*, 2000. 1.

〈표 2〉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

	1991	1994	1999p	1991	1994	1999p
전체	108,249	114,163	128,616	100.0	100.0	100.0
민간	(89,849)	(95,036)	(108,455)	(83.0)	(83.2)	(84.3)
광업	689	601	535	0.6	0.5	0.4
건설업	4,650	4,986	6,273	4.3	4.4	4.9
제조업	18,406	18,321	18,431	17.0	16.0	14.3
서비스생산부문	84,504	90,256	103,376	78.1	79.1	80.4
운수·통신	5,755	5,984	6,792	5.3	5.2	5.3
도매업	6,081	6,162	7,004	5.6	5.4	5.4
소매·음식	19,284	20,507	22,788	17.8	18.0	17.7
금융·부동산	6,646	6,896	7,632	6.1	6.0	5.9
서비스업	28,336	31,579	39,000	26.2	27.7	30.3

자료 : U.S. Dept. of Labor, *Monthly Labor Review*, 1999. 11.  
 \_\_\_\_\_, BLS Data.

이러한 고용증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1.1% 이하이거나 마이너스(-)인데 반해, 서비스업의 고용은 4%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비농취업자에 대한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은 1994년 16.0%에서 1999년 14.3%로 감소한 데 반해, 서비스업 일자리는 27.7%에서 30.3%로 증가하였다<sup>1)</sup>(표 2 참조). 현재 미국 노동력의 약 80%인 9,300만명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움직이거나 정보를 생산·가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높은 취업증가율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거의 불변인 상황(지난 6년간 0.3%포인트 증가)에서 실업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경기저점인 1991년에 6.8%, 1992년 7.5%에서 계속 하락하여 1999년 4/4분기에 4.1%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1월 현재 4.0%이다.

그러나 이렇게 거시통계로 보는 고용증가의 배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 뒤흔들기(job churning)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1995~96년간 순고용은 187만명 증가하였으나,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620만개나 되고, 사라진 일자리는 1,434만개나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모든 일자리의 1/3 가량이 매년 유통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매년 전체 일자리의 1/3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추가되거나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들이 더 큰 불안정성에 놓이게 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OECD국가 노동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45~54세 남자의 평균근속연수는 1983년 12.8년에서 1996년 10.1년으로 줄어들었다.

<표 3> 1995~96년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단위: 개, 명, %)

		1995	증 감	창 업	폐 업	확 장	축 소
전산업	사업체	5,878,957	91,031 (1.5)	697,457 (11.9)	606,426 (10.3)	1,714,598 (29.2)	1,571,826 (26.7)
	취업자	100,282,036	1,867,245 (1.9)	5,908,299 (5.9)	-4,995,216 (-5.0)	10,284,766 (10.3)	-9,330,604 (-9.3)
제조업	사업체	360,780	1,013 (0.3)	31,558 (8.7)	30,545 (8.5)	128,343 (35.6)	120,835 (33.5)
	취업자	18,610,418	-125,487 (-0.7)	561,669 (3.0)	-591,758 (-3.2)	1,388,989 (7.5)	-1,484,387 (-8.0)

1) 미국노동통계국(BLS)은 1998~2008년 동안 고용증가의 90% 이상이 서비스생산부문(service-producing sector)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컴퓨터 및 데이터처리, 광고, 자동차 등 기계 보수·수리 등의 사업서비스업 및 보건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 전망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노동부, *Monthly Labor Review*, 1999. 11.).

그러나 일자리 뒤흔들기나 고용불안정성은 최근 들어 해고율의 감소, 한시적 노동자(contingent worker)의 비중 감소 등 약간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고증가 경향이 주춤해지고 있다. 해고율(worker displacement, 근속이 3년 이상인 20세 이상의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고된 경우)은 1990~91년 불황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체되고 있다. 1995~96년간 20세 이상 3년 이상 근속의 노동자 중 220만명이 공장폐쇄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상실하였고, 이들의 전체 노동자 대비 비중(해고율, worker displacement rate)은 2.9%로 1993~94년 3.3%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83%가 1998년 2월까지 재취업되었다. 1991~92년 사이에 해고된 근로자 중에서 1994년 2월까지 재취업된 비중 75%보다 높은 것이다(Hipple, 1999)<sup>2)</sup>.

또한 비전통적 근로자(alternative worker arrangements)의 비중도 처음 광범하게 조사된 시점인 1995년 이후 그 비중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스스로를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지속적인 고용계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한시적 노동자(contingent worker)의 비중도 1995년 603만명, 4.9%에서 1997년 557만명, 4.4%으로 감소하였다(Hipple, 1998). 1999년에도 564만명인 4.3%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표 4 참조).

한시적 노동자나 파트타임의 증가가 최근 미국 신경제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우선, 이러한 파트타임까지 포함한 비전통적 고용형태의 비중은 1980년 25%에서 1996년 28%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1986년 100만명에서 1997년 210만명으로 증가한 과건노동자(계약업체근로자 포함)를 예외로 한다면, 이러한 수의 증가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경향도 통계적으로 뚜렷하진 않다.

다만, 실리콘 밸리 등 신경제의 중심부에서 이러한 비전통적 고용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Carnoy, Castells Benner, 1997),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파트타임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이 1983~93년간 평균 이상의 고용증가를 이루었다(Fallick, 1999b). 따라서 비전통적 고용형태가 미국 경제에서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경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는 있다.

한편 이러한 일자리 뒤흔들기나 고용불안정성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는 기업가의 의지와 능력이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과 결합하여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일시해고보다는 영구해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의 해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비전통적 고용형태(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단위: 천명, %)

	1995	1997	1999	1995	1997	1999
총 취업자	123,208	126,742	131,494	100.0	100.0	100.0
전통적 고용형태	111,052	114,199	119,109	90.1	90.1	90.6
비전통적 독립계약취업자 고용형태(independent contractors)	8,309	8,456	8,247	6.7	6.7	6.3
호출노동자(on-call workers)	2,078	1,996	2,032	1.7	1.6	1.5
파견근로자(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1,181	1,300	1,188	1.0	1.0	0.9
계약업체근로자(workers provided by contract firms)	652	809	769	0.5	0.6	0.6
비한시적 고용(non-contingent)	117,174	121,168	125,863	95.1	95.6	95.7
한시적 고용(contingent (est.1))	2,739	2,385	2,444	2.2	1.9	1.9
(est.2)	3,422	3,096	3,038	2.8	2.4	2.3
(est.3)	6,034	5,574	5,641	4.9	4.4	4.3

자료 : U.S. Dept. of Labor, News. 1995. 8. 17, 1997. 12. 2, 1999. 12. 21.

1991~95년 사이에 벤처지원 기업들에서의 고용은 매년 34% 증가한 반면, 포춘 500대 기업의 고용은 3.6% 감소하였다. 현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3/4이 약 350,000개의 새로운 고정장 벤처기업들(영양떼기업들, Gazelle firms: 4년 연속 적어도 2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이루는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1993~97년 사이에 약 40%가 증가하여 355,000개에 달하고 있다<sup>3)</sup>. 특히 100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전체 일자리 증가의 46%를 차지한다(Atkinson and Court, 1998).

3) 벤처캐피탈 투자는 전체 GDP의 0.1%(1980년)에서 0.16%(1997년)로 증가하였다. 1993~96년간 미국은 유럽보다 2배나 빨리 증가하였다(Atkinson and Court, 1998).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에 따르면, 1999년의 창업은 230만개, 1998년의 290만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노동시장이 매우 긴박해지면서, 임금은 오르고 구인광고가 많아지면서 창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만 못하지만 1998년에도 450만명의 미국인들이 창업 대열에 나서고 있다.

### Ⅲ. 低失業率과 低인플레이率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0%로 3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이런 낮은 실업률은 거의 자연실업률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노동시장이 매우 긴박한 상태(tight labor markets)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비자발적 실업자 비중 감소, 주변노동자로의 채용기회 확대, 장기실업자의 감소 등의 지표로 확인될 수 있다.

첫째로 민간실업자 중 비자발적 실업자(loser)의 비중이 1999년 12월 현재 1.7%(전년동월 2.0%)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고, 실업기간이 매우 짧아진 것이다. 실업지속기간의 중위값(median)이 1994년의 9.2주에서 1999년에 6.4주로 줄었으며 가장 최근 호황이었던 1988년 수준(5.9주)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둘째는 전에 비해 최근 2년간(1998~99년) 성인과 백인 실업자의 실업률 감소폭(0.3%포인트)이 적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10대와 흑인 및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크게 감소(1%포인트, 1.1%포인트, 0.7%포인트)하였다(표 5 참조). 이는 인력충원이 정규노동력(백인 정규 근로자)으로 모자라 여타 주변노동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실업기간별로 보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94년에 20.3%에서 1999년 12.3%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장에 마찰적 요인의 실업만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특성별 실업률과 전년대비 변화

전 체	1997		1998		1999	
	실업률	변화	실업률	변화	실업률	변화
전 체	5.0	-0.5	4.5	-0.5	4.2	-0.3
성인 남자	4.2	-0.4	3.7	-0.4	3.5	-0.3
성인 여자	4.4	-0.5	4.1	-0.5	3.8	-0.3
10대	16.1	-0.6	14.6	-0.6	13.9	-0.7
백인	4.2	-0.5	3.9	-0.5	3.7	-0.2
흑인	10.1	-0.4	8.9	-0.4	8.0	-1.0
히스패닉	7.8	-1.2	7.1	-1.2	6.4	-0.7

자료 : U.S. Dept. of Labor, News, 2000. 2.

미국의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는 전통적으로 5.5% 수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1997년 7월 이후 5% 이하로 떨어졌다<sup>4)</sup>. 기존의 NAIRU를 적용하면, 이미 2~3년 전부터 노동시장의 압력으로 임금과

물가가 상승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1998년 1.5%, 1999년 2.2%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임금상승률은 1998년 4.2%에서 1999년 3.6%로 감소하였다. 이는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의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패러독스가 또 한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째, 신경제용호론. 하이테크제품 생산의 급속한 증가로 기존의 필립스커브와 관련이 되는 공급능력 제한(capacity constraint)이라는 측면이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글로벌화로 저기술제품의 공급이 낮은 가격으로 무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강조한다. 이 견해는 주로 뉴욕 월가의 금융전문가들, 기업연구소 전문가들의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Alan Greenspan도 경제를 부양하는 X-factor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공식적인 통계적 수치로 쉽게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NAIRU나 단기 필립스곡선, 자연실업률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는 견해이다(Robert Eisner, 1999).

셋째, 기존의 학계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견해로 최근의 현상을 NAIRU나 필립스곡선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고, NAIRU 자체의 하락 또는 필립스곡선이 좌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도 NAIRU의 하락 원인을 놓고 생산물시장요인론과 노동시장요인론으로 대별된다. 노동시장적 요인에 주목하는 경우, 이는 NAIRU를 항구적으로 낮추는 구조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생산물이나 금융시장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경우, 이는 일시적인 NAIRU 이동이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쇼크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NAIRU는 1980년대 중반에 비해 1990년대 중반에 0.7~1.5% 감소하였다(Stiglitz, 1997; Gordon 1998). 그러나 NAIRU 감소의 원인, 크기,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우선 Gordon으로 대표되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쇼크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재 미국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은 낮은 실업률에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낮지만, 다른 지표, 즉 가동률(rate of capacity utilization)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sup>5)</sup>. 즉 현재 실업률은 30년만의 최저수준이지만, 가동률은 역사적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4) 이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대성장률(생산성증가를 더하기 노동력증가율)이 2.25~2.5%라는 것을 의미한다.

5) 가동률이 제조업, 광업, 공익설비업 등에만 적용되고 서비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인 산업설비에 대한 압박없이 증가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와 비교해 볼 때, 제조업 분야에 설비능력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분야에서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있다. 또한 임금상승률(1994년 이후의 임금상승률)은 낮은 가동률에 비해서는 매우 높지만, 실업률 수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Gordon (1998)은 “왜 임금상승률에 비해 인플레이율은 이렇게 낮은가”, “왜 가동률은 증가하지 않는데 실업률은 이렇게 하락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NAIRU의 하락 요인을 유리한 가격쇼크(컴퓨터와 에너지가격 하락)와 인플레이션 측정방법의 변화 등 일시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반면 Stock(1998)은 NAIRU와 실업필립스곡선이 아래로 하락한 것 이외에는 주요 경제변수들간의 관계에는 별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에 가격인플레이션과 가동률 및 산업생산 기타 경기순환 관련지표들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따라서 저실업-저인플레이율의 호조합을 가능하게 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Stock(1998)은 “주어진 실업률에서 왜 인플레이율이 이렇게 낮은가”보다는 “주어진 인플레이율에서 왜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가”가 현재의 경제퍼즐의 주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경제의 해명은 가격인플레이션을 낮춘 특별한 요인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1990년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자리 탐색을 원활하게 해주는 정보기술의 발전이나 복지시스템의 개혁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립스곡선과 NAIRU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지적될 수 있다. 노동시장적 요인에서도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구조적 요인 이외에 노조교섭력 약화,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 고용불안 증대가 초래한 임금인상요구 억제경향, HMO 도입 등 의료개혁에 따른 부가급여의 감소 등의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외에 경쟁격화와 투자비용에 따른 과잉설비로 임금인상의 가격인상으로의 전가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 비임금노동비용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줄어들어 기업들이 피고용자의 연금에 대한 기여분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 보너스나 스톡옵션이 전통적인 통계자료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조기퇴직 추세 정책 및 불법이민 증가<sup>6)</sup> 등으로 노동력 공급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점 등도 고려대상 요인이다.

한편 생산물 시장적 요인으로는 식량과 에너지가격 하락, 자본의 미국 유입에 따른 달러화 강세, 수입가격 하락, 컴퓨터가격의 하락, 의료비용의 하락, 이자율 하락, 가격지수 측정기술 개선 등이 지적될 수 있다.

Katz and Krueger(1999)는 1988년 이후 임금필립스곡선과 비버리지곡선이 이동하였다고 보고 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NAIRU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1% 정도 떨어졌다고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변화와 노동시장 일궁합(matching)의 효율성 증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범죄자 비중증가나 노조약화 및 직장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 둔화 등의 요인은 상대적으로

6) 현재 미국의 불법이민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우선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면, 16~24세 인구의 비중이 1978년 24.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97년에는 1960년대 수준인 15.8%로 되돌아갔다. 당연히 자연실업률이 높은 계층인 청년층의 비중 감소와 자연실업률이 높은 계층인 중장년층의 비중 증대는 전체 NAIRU를 0.4% 정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7)</sup>.

한편 노동력과건산업(temporary help industry) 증가, 실업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 탐색지원시스템(Job Search Assistance : JSA) 등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 요인도 NAIRU를 최대 0.4%까지 낮추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히나 그린스펀이 지적하였던 일자리불안정 심리 때문에 임금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가설(weak backbone hypothesis)에 대해서는 최근의 조사결과 노동자들이 직업안정성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의 설명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인구학적 변화와 노동시장 효율성 증대 등이 1990년대 NAIRU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저인플레이와 저실업률의 공존이라는 이러한 현상의 블랙박스 는 여전히 정보통신 기술혁신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보통신 기술혁신이 노동시장의 정보화로 일공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인플레이 압력을 완화한다면 신경제 옹호론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고 저인플레이-저실업 경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학계의 반응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 IV. 生産性 패러독스의 解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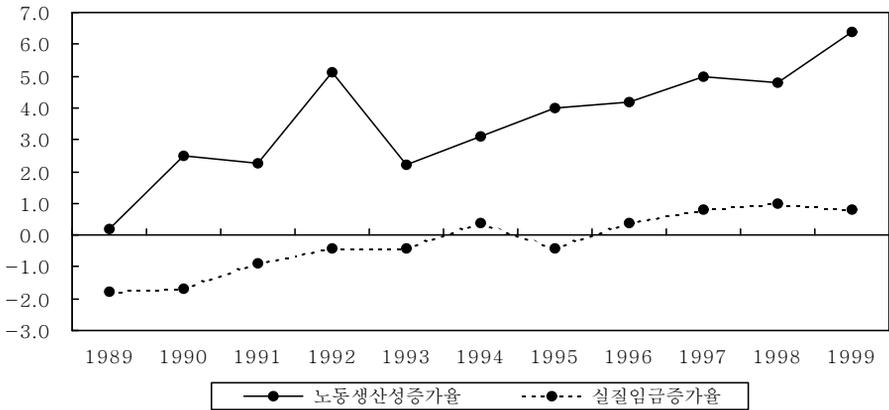
저실업에도 불구하고 저인플레이가 유지되는 것은 정보기술(IT)혁명으로 발생한 높은 “생산성 증가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압력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New York Times, 1999. 11. 12) 가능하였다. 이는 신경제를 옹호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1999년도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실질부가가치 기준)은 6.4%로 1971년(6.9%)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를 제조업의 실질임금증가율과 대비하면 [그림 1]

7)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 요인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요인도 들어간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속도도 1990년대 들어와 크게 둔화되었고 여성들의 직장 경험연수도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직업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이것이 여성들의 추정실업률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Katz and Krueger, 1998; 69).

과 같다. 1990년대 전기간에 걸쳐 생산성증가율이 실질임금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 현상은 1978~82년에 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였던 시기를 제외하면 1983년 이후 1990년대 후반 들어 더욱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며, 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증가율간의 격차도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비농전산업으로 보더라도 1999년 한 해 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9%인데 반해 실질임금증가율은 1.5%로 그 절반을 약간 넘을 뿐이다.

(그림 1)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증가율 추이



자료 : U.S. Dept. of Labor, News, 2000. 2.

1997~99년간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 이상으로 이는 지난 25년간 평균의 2배에 달한다. 1999년 3/4분기 이전 4년간의 생산성증가율(2.7%)은 1996년 4/4분기 이전 4년간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0.9%)의 3배에 달한다.

이와 비슷한 생산성 증가현상이 1990~92년, 1983~86년, 1977~78년에도 일어났으나 모두 불황국면 이후 발생한 현상이며 곧바로 반전되어 생산성은 다시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전통적으로 생산성 증가는 경기팽창의 후반에 노동력 풀의 소진으로 저숙련노동자들을 끌어들이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둔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팽창이 지속되면서도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생산성 증가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의 현상이 기존의 생산성 역설<sup>8)</sup>과 생산성 둔화경향을 뒤집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8)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란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생산성 증가는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역설이다. 1948~73년까지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은 매년 1.9%, 노동생산성은 2.9%로 증가하였으나, 1973년 이후 각각 0.2%,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Robert Solow의 “우리는 생산성 통계 이외의 모든 곳에서 컴퓨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그동안 컴퓨터에 많은 투자를 했으나 생산성 이익을 얻지 못했다(적어도 통계적으로). 미국은 1992~98년까지 실질GDP는 3.2% 상승하였으나 투자는 10.1% 상승하였고, 정보처리설비에 대한 투자는 1997년의 경우 전체 생산자 설비투자의 34%를 차지하여 기계투자의 비중인 22%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산성은 컴퓨터가 도입된 시점인 1972년부터 정확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산성 패러독스와 최근의 생산성 증가경향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존 통계가 정보통신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한 가설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산가설(The Diffusion Hypothesis)이다. 이 견해는 기술적 도약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의 시간지체(time lag)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Paul David(1991)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발전기가 1881년에 발명되었지만, 기업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공장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고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발명된지 26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가설이다.

둘째, 인터넷가설(Internet Hypothesis)이다. 이 가설은 현재 생산성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우연하게 인터넷이 경제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이러한 컴퓨터 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현실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고속컴퓨터가 전국적 규모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ivity)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인터넷이 그동안 생산성 패러독스의 상실된 고리(missing link)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Blinder, 2000).

셋째, 집중가설(The Concentration Hypothesis)이다. Gordon(1999)은 최근의 생산성 향상이 컴퓨터의 활용(using)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보다는 컴퓨터제조(manufacturing)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으로 파악한다. 즉 1995년 이후의 100% 이상의 생산성증가를 증가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며, IT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의 1%에 불과한 컴퓨터제조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추가적인 생산성증가를 1%에 있어서 0.4%는 경기순환적 성장률 증가에 기인한 부분, 0.3%는 인플레이 측정방식의 개선, 나머지 0.3%는 컴퓨터업종에서의 생산성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가설은 컴퓨터의 생산이 아니라 활용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가설은 인터넷가설과 상충한다.

신경제, 특히 인터넷경제에서 생산성 이익은 인터넷판매가 기업의 판매비용 및 기타 비용을 절약할 때에만 가능하다. 엄청난 액수의 장착비용(setup costs), 광고예산, 온라인 소매상들의 손실액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이러한 비용절감이 현실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인터넷이 기업과 기업간 거래영역에서의 공급체인(supply chains)을 온라인

회할 경우 측정하기 어려운 생산성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러한 현상이 생산성 통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 V. 所得分配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 미국 경제의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지만 여기서는 미국 경제의 소득분배 악화 경향을 나타내는 일화적 통계수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학력, 저소득 계층의 실업가능성이 높아졌다. 1970년대에 고졸 중퇴자는 대졸자에 비해 3.5배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에는 4.5배가 더 높다. 고속련직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전문관리직의 보수는 증가하였고, 중위 숙련노동자의 보수는 정체하였으나 저숙련노동자의 보수는 감소하였다. 1987~96년 사이에 전문관리직의 보수는 블루칼라보다 2.5배, 서비스직보다 4.3배 빨리 증가하였다. 은퇴나 의료관련 급부가 줄어들었다. 명확한 연금플랜의 혜택을 받는 이가 1981년 전노동력의 30%에서 1994년 20%로 떨어졌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중도 1985년 15%에서 1995년 18%로 증가하였다.”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제출되었다. 그 논쟁은 주로 숙련노동편향적 기술진보와 글로벌화에 따른 저가격제품의 수입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과 노조조직의 약화 등의 제도적 요인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1997년 미국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는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기술변화(45%), 국제무역(12%), 실질최저임금의 하락(10%), 노조조직률의 하락(10%), 이민의 증가(8%), 기타 요인(15%)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에서의 불평등성의 증대는 1980년대에 나타났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더 이상 증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tkinson and Court, 1998; 23). 즉 1989년 이후 불평등도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1996~98년간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증가율은 하위 10% 또는 50%의 증가율보다도 낮았다. 이 기간중 하위 10% 노동자들의 실질시간당 임금이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ik(1998)은 편모여성가장(single women with children)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복지개혁으로 인한 저임금노동자들의 경쟁격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놀라운 수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EITC가 크게 확대된 사실을 고려할 때, 자녀를 가진 저임금노동자의 보수 증가는 매우 의미가 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 임금상승이 더디었지만, 경기호황이 지속되면서 1996년

이후 저임금근로자들에게도 호황의 과실이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utler and Katz(1991)은 1980년대 저숙련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시기 경기확장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것만큼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1980년대보다 더 긴박해져 부분적으로 기존의 저숙련노동자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노동수요 추세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Katz and Auto, 1999).

그러나 가계소득의 불균등도는 증가하고 있다. 1980~96년 사이에 상위 5% 가계의 소득은 58% 증가하였으나, 하위 60%의 소득은 4%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무역, 외국인투자, 신기술 등 수요측면의 노동시장 요인이 소득불평등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요인은 편부모가정(one-parent families)의 증가 및 고소득 남자의 부인들의 소득증가 등이 가계소득 불평등 증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Ⅵ. 맺음말

미국이 신경제하에서 좋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논의의 출발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전망도 결국 신경제가 최근 노동시장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나에 모아진다. 신경제의 X요인<sup>9)</sup>이 과연 존재하며 이것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신경제의 노동시장 성과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전체 경제환경과 제도적 요소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신경제옹호론자들이 필립스곡선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이 작용하는 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 임금은 오르기 마련이다. 생산성 증가효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면 노동자의 뒤늦은 인식(misperception)이 항구적이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공급쇼크 요인들이 반전해서 노동력 부족, 부동산가치 상승, 사적 부문의 저축률 저하, 미국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의 증대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논의는 신경제의 기술혁신효과가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제도와 주변 여건과의 조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그린스핀이 말한 미국 경제의 활성화 요소, 어떤 사람은 이를 해석하여 '신기술+유연한 통화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參考文獻

- Atkinson, A. Robert and Randolph H. Court, *The New Economy Index: Understanding America's Economic Transformation*, The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1998.
- Barua, Anitesh and Jon Pinnell, Jay Shutter and Andrew B. Whinston, *Measuring the Internet Economy: An Exploratory Study*, Center for Research in Electronic Commerc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9.
- Bartik, Timothy J. "Displacement and Wage Effects of Welfare Reform", Unpublished paper. Kalamazoo, Mich.:W.E.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October), 1998.
- Blinder, S. Alan, *The Internet and the New Economy*, 2000.
- Bosworth, Barry and George L. Perry, "Productivity and Real Wages: Is There a Puzzl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BPEA)*, Vol. 1, 1994.
- Carnoy, M., M. Castells and C. Benner, "Labor Markets and employment practices in the age of flexibility: A Case Study of Silicon Valley".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36, No.1, Spring 1997.
- Eisner Robert, "The Economy is Booming. So Why Are Economist Glum?",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Jul 29. 1998.
- Hipple, Steven, "Worker Displacement in the mid-1990s," *Monthly Labor Review*, July, 1999.
- Fallick, C. Bruce, "Part-time work and industry growth",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99b.
- Hipple, Steven, "Contingent Work: Results from the Second Survey," *Monthly Labor Review*, November, 1998.
- Gordon, Robert, Foundations of the Goldilocks Economy: Supply Shocks and the Time-Varying NAIRU,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8.
- Katz, Lawrence and Alan B. Krueger, "The High-Pressure U.S.Labor Market of the 1990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99.

- Katz, Lawrence F. and David H. Autor.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3, edited by Orley Ashenfelter and David Card. Amsterdam: North Holland. 1999.
- Sichel, E. Daniel, *The Computer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1997.
- Stiglitz, Joseph, "Reflections on the Natural Rate Hypothesi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1, No.1, Winter 1997.
- Stock, H. James, "Comment and Discu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8.
- Triplet, E. Jack, "The Solow Productivity Paradox: What Do Computers Do to Productivit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pril 1999.